

익산 상반기 공기 달랐다

초미세먼지 36% 대폭 감축 '실추된 이미지 회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0개 사업 효과 입증 돼

익산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상반기 평균 농도 39 $\mu\text{g}/\text{m}^3$ 에서 올해 25 $\mu\text{g}/\text{m}^3$ 으로 작년 대비 36% 정도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 대비 28% 감축되었고 전북 지역도 30% 감축률을 보이는 가운데, 익산시가 38%를 감축하여 전국·전북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달성했다.

또한 도내 초미세먼지 고농도 순위 변화도 눈에 띄는데, 작년 상반기 동안 도내 1위의 불명예를 안겼던 익산 지역 농도가 올해 1~2월에 2위, 3~5월에 3위, 6월에는 6위까지 떨어져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익산시가 지난해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며 올해 들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0개 분야에 50개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도로이동오염원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2,161대를 조기폐차 지원하고, 약취시설 개선 분야에 1개소를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했다.

이 밖에도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1억400만원을 투입 1,559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파쇄기를 활용한 농업부산물 비료화 사업을 166농가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03세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26개소 등 실생활에 관련 있는 사업들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깨끗하고 맑은공기로 숨쉴 수 있는 환경 친화도시로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계놈앤내츄럴바이오 익산공장 착공

저분자 어린콜라겐 원료 건강기능식품 생산 기대

최근 글로벌 음료산업의 선도기업인 (유)삼아에프씨에 이어 (유)계놈앤내츄럴바이오가 지난 10일 익산공장을 착공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기를 띠고 있다.

계놈앤내츄럴바이오는 이번에 건립하는 익산공장을 발판으로, 어류 비늘에서 추출한 저분자 어린콜라겐을 원

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앞세워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계놈앤내츄럴바이오는 지난 5월에 8,206㎡(2,488평)의 부지 취득을 마쳤으며, 약 80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내에 익산공장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

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숙 익산 부시장은 "기업들의 연이은 착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다 활기 넘치게 되어 기쁘다. 계놈앤내츄럴바이오의 콜라겐 생산공장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린콜라겐이라는 아이টে이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대 광병선 총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이 최근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세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SNS 인증 캠페인으로 SNS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전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의미를 지녔다. 두 손을 모아 비누 거품을 내면서 손을 씻고 있는 로고와 '이겨 내자'라는 의미를 담은 'Stay Strong' 문구, 릴레이 주자의 응원 메시지가 합쳐져 전세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은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에게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의 릴레이 주자로 자목받았고, 다음 주자로는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을 추천했다.

광병선 총장은 "마스크 철저히 하기, 손씻기 등의 일상적인 위생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 시설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한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하여 안전실태 파악 및 안전관리 지도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익산소방서, 대형재난 방지 '팔걸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찾아 소방컨설팅 실시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하여 안전실태 파악 및 안전관리 지도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부처의 화재안전의식 제고와 소통을 통해 예방업무 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익산 왕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32만1,928㎡으로 2014년 기공식을 통해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40여개 업체, 73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에 많은 업체 입주와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곳으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10일 전 서장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내 위험요소 실태 파악,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및 속지 당부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 끝으로 애로사항 청취 등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산업단지는 화재 특성상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제적 예방으로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산업단지내 작년부터 왕궁19지역대를 신설하여 화재 감시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제로 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선광, 위기극복 '성금 1000만원' 쾌척

군산발전 위해 매년 기부 눈길

해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주)선광(지사장 엄기배)이 지난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선광은 2010년부터 매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군산시청을 방문한 엄기배 지사장에게 김일준 군산시장은 "지역경

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온정어린 손길의 도움을 주신 (주)선광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하신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주)선광 군산지사는 2004년에 군산항에 진출해 단일 터미널 중 국내 최대 저장 능력(8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곡물 전문 하역업체로 지난 2019년도에는 전국 33개 부두운영사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시 새만금아카데미 16일 유튜브서 생중계

군산시가 새만금아카데미 강화를 유튜브채널을 통해 진행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군산시는 명사초청 시민대상 강연프로그램인 '군산새만금아카데미' 2강좌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군산시청 대강당 등에서 매회 2-300명 규모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7월중 강연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강연은 소방전문가 윤태의 교수를 초청해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란 주제로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익산시 '도내 1위' 차지

익산시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58개 정량지표 중 51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87.9%로 도내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행안부를 비롯한 22개 중앙부처가 전국 지자체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토대로 한 이번 평가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지표인 △태태 개선율 통한 규제대로 실적 △친환경 자동차 확산 △주민민당 재화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장왕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